

“반값 가전도 안 팔려” 장기불황에 리퍼브 매장 ‘고전’

미세결함·이월상품 등 할인 판매 ‘온라인 가격보다 저렴’ 홍보에도 소비심리 위축에 물량·매출 ‘급감’ “경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절실”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반값 매장’ 인데도 손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불황 탓에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반값 물량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포장 상자 손상이나 미세한 결함 등으로 반값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 가전 매장 대표 허모(42)씨는 최근 들어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값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정가 대비 50~60% 이상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데도 가전제품 수요 자체가 줄어 손님을 구경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든 만큼 반값 물량도 감소해 리퍼브 제품 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특정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리퍼브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간혹 있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반값 물량이 더욱 줄고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하면서 그런 모습조차 보기 어려워졌다.

허씨는 “본사에서 반값 상품을 확보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값 물량 부족으로 판매할 제품이 없어서 매장이 텅텅 비어 있다”며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리퍼브 매장에도 활기가 도는데 경기 불황이 지속되니 매장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 반값 물량 감소로 취급 상품의 가격까지 상승해 손님들의 발길이 더욱 멀어졌다.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인데 판매가 부진하니 최근에는 적자만 기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값 상품, 유통기간 임박 상품, 전시 상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리퍼브 매장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정국 불안 등까지 겹치면서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6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부족, 국제 유가 폭등 등의 원인으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14.32% 급등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양상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리퍼브 매장의 주요 고객이 되는 서민층의 가정용품 등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한정적인 소득과 생

활비로 인해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의 소비는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비 구간 ‘100만원 미만’ 가구의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소비 지출은 1만9449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2% 감소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가전 및 가정용 기기(-47.3%)’와 ‘가전 관련 서비스(-38.1%)’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지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14.6%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수치다. 이외에도 ‘의류·신발(-8.1%)’, ‘미용용품’ 등을 포함한 ‘기타 상품·서비스(-11.9%)’ 등에서 지출이 감소했다.

소비 구간 ‘400만원 이상’ 가구의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25만9711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4% 줄었으나, ‘가전 및 가정용 기기(8.6%)’와 ‘가전 관련 서비스(4.0%)’는 각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의류·신발(0.3%)’에서는 늘었고 ‘기타 상품·서비스(-0.6%)’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이에 상인들은 서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용품, 가전, 가구,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반값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51)씨는 “매장 운영 초창기까지만 해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생활용품, 가전 등을 구매하기 위해 반값샵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으나 지금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식품 등을 제외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중소조선연구원,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속도’

중소형조선소 생산혁신센터 건립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경쟁력 ↑

중소조선연구원이 국내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낸다.

12일 중소조선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소·협력사 간 생산협업 디지털전환 기술 개발 및 실증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건립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사업 등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조선소와 협력사 간에 실시간으로 생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설계·생산 데이터를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설계·생산 계획 및 실적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고, 조선소에서 설계한 대용량 3D 도면 및 설계 정보를 협력사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조선연구원은 이 기술개발 사업을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력사의

생산 리드타임 및 생산 계획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및 데이터센터 구축과 생산 실적 수집 시스템, 협력사용 포털 시스템 보급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조선연구원이 추진 중인 실시간 생산정보 공유 플랫폼은 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생산계획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소 협력사도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이 플랫폼에 축적된 생산 데이터를 활용해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면, 향후 자동화와 무인화 수준을 더욱 높이는 차세대 스마트 조선소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에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가 건립된다. 부지면적 6381㎡, 연면적 4240㎡ 규모로 연구동과 실험동 각 1동을 구성하고, 융집·도장·검사 공정용 자동화 장비부터 DX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 장비 등 총

22종의 실증 설비를 갖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형 조선소가 직면한 인력 부족,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선박 건조 전 공정의 자동화·지능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 조선소에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하는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사업’도 올해 본격화된다.

국내 중소형 조선소와 사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설계·생산·품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협업할 수 있는 ‘조선소·협력사 연결화’ 도입부터, 생산공정에 스마트 장비, IoT 기술, AI·빅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 연결화, 지능화 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각 사업 관련 세부 내용과 지원 신청 방법은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www.rims.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롯데백 광주점, 서울 갈비 맛집 ‘삼원가든’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서울 압구정 유명 갈비 맛집인 ‘삼원가든’ 행사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삼원가든은 갈비의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로 서울 압구정에서 48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갈비 명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념 왕갈비, 양념 한우 불고기를 비롯해 LA 갈비까지 전통 갈비 명가의 노하우가 담긴 맛을 즐길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 상장법인 4월 시가총액 증가

거래대금은 감소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4월 시가총액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증가는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과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제공한 ‘2025년 4월 광주·전남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장법인(38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4.9%(2조9503억원) 증가한 2조7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15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5.3%(2조7925억원) 늘어난 21조937억원, 코스닥 23개사의 시가총액은 10.4%(1578억원) 증가한 1조6747억원으로 마감했다.

광주·전남상장법인의 시가총액비중은 국내 전체 상장법인의 0.9%로 전월 대비 0.1% 포인트(p) 증가했다.

4월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2

조524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했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1조4253억원으로 전월 대비 25.7% 감소했으나 코스닥은 1조988억원으로 3.0% 증가했다.

4월말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증가액’ 상위 3개 종목 중 코스피는 한국전력 16조4664억원(2조5679억원 ↑), 한전 KPS 1조9845억원(1035억원 ↑), 금호타이어 1조3846억원(244억원 ↑) 순이다.

코스닥은박셀바이오 2342억원(475억원 ↑), HLB랩 942억원(449억원 ↑), 우리로 606억원(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승률’ 상위 3개 종목 중 코스피는 금호건설우 55원(65.35% ↑), 다이나믹디자인 384원(54.2% ↑), 금호건설 1127원(22.7% ↑) 순으로 높았다.

코스닥은 HLB랩 942원(91.2% ↑), DGP 312원(40.7% ↑), 박셀바이오 2342원(25.4% ↑) 순으로 나타났다.

최권범 기자

광주 AI사관학교 6기 가동…실무형 인재 양성

19일까지 전국 청년 330명 선발 AI 비즈니스 등 5개 트랙 확대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AI 사관학교)가 새롭게 선정된 교육운영기관과 함께 AI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AI 사관학교의 2025년도 교육과정을 6기부터 새로운 운영기관과 함께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AI 사관학교는 전국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학력·전공·지역에 제한 없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맞춤형 AI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 AI 집적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정착형 인재를 육성해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AI 사관학교 6기 운영은 ㈜이스트소프트, (사)스마트인재개발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네이버클라우드㈜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는다. 이들은 지난 4월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교육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6기부터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이 학교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업계 실무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의 전문성과 교육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6기는 총 130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사전 학습(온라인 Pre-과정) △AI 기초·전공 핵심(AI 빌드업) △전공 심화(AI 엑스퍼트) △실무 프로젝트(AI 마스터) 단계로 진행된다.

기존 △AI 모델링 △서비스 △플랫폼·인프라 트랙에 더해, 올해는 △AI 데이터 △AI 비즈니스 트랙이 추가돼 총 5개 트

랙으로 확대됐다.

또 자연어처리, 컴퓨터비전, AI 클라우드 및 인프라, 데이터 분석 등 7개 마이크로 트랙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였다.

올해는 기존 사업계획 대비 더욱 강화된 운영 목표를 설정했다. △취·창업률 80% 달성 △AI 자격증 200건 이상 취득 △중견기업 연계 프로젝트 25건 이상 수행 △광주지역 인턴십 100건 이상 연계 등을 추진하며, 수료생의 60% 이상을 광주 정주형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AWS, SK, LG CNS 등 주요 기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정상원 이스트소프트대표, 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 윤정원 AWS Korea 공공부문 대표 등 업계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AI 사관학교는 오는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서류·프리과정 이수 결과 등을 종합해 23일까지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정규 교육은 6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상이 기자